

#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 성대히 진행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우주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여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광명성》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선도하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우주정복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가리라 하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우주강국건설 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온 누리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공헌한 성원들

에게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집회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주정복의 길에 바친 평범한 전사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하시어 주체조선의 영웅중의 장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이날 오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성공에 기여한 련관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계속 진행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김정일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김정일청년영예상과 인민과학자칭호, 공훈과학자칭호 등 명예칭호들,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우주강국으로 빛내이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연회와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